

†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이 모습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과 수난을 동반하는 현실이라는 삶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돌이켜보는 한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 12일 복음 말씀 사순 제 2주일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 신부 이야기

사순 1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주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방법의 핵심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1. 하느님께 의지하라 2. 영적으로 무장하라 3. 즉시 떠나라.** 이 세가지를 기억하지요?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죄는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아를 분열시켜 마음과 삶에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곧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이국땅에서 곳곳하게 살아가려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행복한 삶이란 경제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몸과 영혼이 병든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고 챙기는 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여정을 따르다보면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맑아집니다.** 바쁘더라도 내 자신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 말씀에 귀기울이는 사순의 여정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아래 내용 중 ‘누군가’와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한 주간 생각해 봅시다.

-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빅토르 위고)
- 타인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세네카)

2017년도 3월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 행사>

재의 수요일 전례 - 3/1 (수)

재의 수요일 (3/1) 저녁 미사에 9명의 하모니가 참례하여 머리에 재를 받고 함께 사순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사 후 사제관에서 신부님과 차를 마시며 사순시기 동안의 다짐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재의 수요일 아침 미사 또는 동

네 성당에서 재의 예식과 함께 사순시기를 시작한 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모두 흔들리지 않는 초심으로 행동하는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 연미사 - 3월 매 주일

3월 5일 주일 연미사(첨부파일)로 시작해 3월 매 주일 아침미사에 구 뜨락회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를 위한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19일 주일은 형제님의 세번째 기일이니만큼 아침 미사에 시간되는 님들 함께 참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추억하며 형제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게시판 하모니 소개

성당 입구에 새롭게 비치된 게시판/화이트보드에 하모니를 소개하여 새로운 청년들이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회합시 의견나는 소개 내용을 회장단이 종합, 정리하여 신부님의 승인을 거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섬머타임 시작 - 3/12 주일

다가오는 주일 (3/12)은 섬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로, 한시간이 날라갑니다~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전례: 사순시기 동안,

사순절 (참고)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3/1) 부활절 (4/16) 전까지 여섯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통회와 보속 그리고 희생으로 재를 지키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과 금욕을 함께 지켜야 하고, 재의 색은 보속과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바꾸며 미사 전례에서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생략합니다.

사순절동안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동안 엄재하신것을 본받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명에 충실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극기와 절제를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특히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국 사순 시기는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경청한 뒤에 우리는 '응답해야하며 우리가 들은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적인 회개를 하느님께 바치는데, 이것이야말로 부활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사순시기 양심성찰" <http://www.oakcc.org/node/2849>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 그리고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적어도 한번은 우리 성당, 또는 근처 이웃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 마지막 시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성당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성화와(책, 또는 인터넷 검색 가능) 기도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다고 신부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 부활판공성사

매 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가 있으며,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여 고해실 안 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

사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로 합니다.

- 특강

4/2 주일 교중미사 중 (김종광 트라이벨리 신부님)

4/9 주일 점심/대청소 후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 성경 쓰기

사순시기동안 신약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야고보 서간을 쓰고 필사한 노트는 부활 성야 미사(4/15)때 봉헌합니다. 사순시기동안 참회와 기도, 나눔과 자선, 그리고 성경쓰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모회장님 스파게티 점심식사 - 3/19

허은희 마리아 성모회장님께서 하모니+뜨락회 설거지 봉사에 고마움을 전하시며 순수 맛있는 스파게티를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점심은 **3/19일 주일 교중미사** 후에 있을 예정이니 모두 같이 맛있게 먹고 인사드려요~ 지난 주일 회합때 공지했던 12일이 **19일로** 바뀌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녀원 방문 - 3/25 토

3/25 토요일 오후 2:30에 조 마오로 수녀님과 함께 Fremont에 위치한 Dominican Sisters of Mission San Jose 수녀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모니, 뜨락회, 그리고 관심있는 모든 미혼 '자매님'들이 초대 되었으니 **참석 여부를 3/12일까지** 알려 주세요요.

영어미사 - 3/26 주일

3/26 주일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본당에서 영어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 목적은 쉬고있는 본당의 영어권 신자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대부분이 하모니, 뜨락회 연령대라 예측됩니다. 또래 영어권 친구들이 따뜻하게 환영 받으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회 멤버들이 주축이되어 챙겨주라는 신부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처음 시작하는 영어미사가 잘 활성화되어 쉬고있는 신자들과 주님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청년 창세기 성경모임 - 5,6월경 시작

3월 시작 예정이었던 조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청년 창세기 성경 모임이 인원 부족으로 잠시 보류됩니다. 5,6월경에 다시 모집하여 시작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 꼭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신청해 주세요~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3월은 특별히 우리 청년회 멤버였던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

Web: www.oakcc.org

은 복음(2017년)을 통해, 그리고 이대로 있는 세상은
 좋은 복음(2017년)이라고 한다. 부끄럼 없이, 겸손히 있
 는, 모후에 있는 삶이다. 신약(신약)이 현대인을 돕는다.

이 책의 목적

날짜	교역	목회자	제목	장소
2017년 1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2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3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4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5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6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7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8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9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0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1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2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2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3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4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5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6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7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8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9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0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1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12월	김대건(가톨릭)	김대건(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영광의 삶(가톨릭)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